



장보고 오면 전기차 충전 끝?

이마트, 쏘점포에 40분 '완충' 집합형 충전소

(2021년)

대한민국에도 미국 실리콘 벨리의 '구글 캠퍼스'처럼 여러 대의 전기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합형'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 이마트를 통해서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 '집합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기차 이용객 성향이 이마트가 집객을 넓히고자 하는 젊고 감각적인 고객층과 겹치는 점을 감

렌터카 많은 속초·강릉 등 4곳 개시 점포 주차장 일부공간 업그레이드 11월 성수점·서귀포점 등 6곳 확대

안, 오프라인 매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이마트는 올해 우선 10개점을 시작으로 매년 30개 이상씩 집합형 충전소를 늘려 2021년까지 이마트 140여개 점포를 비롯한 신세계 그룹사 영업장에 총 1100기 가량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트라픽'과 손을 잡았다.

2일부터 개시하는 정식 서비스는 속초점·강릉점·검단점·구미점 등 총 4곳(각 9기)으로, 점포 주차장 공간 일부를 집합형 충전소로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속초점, 강릉점 등은 휴가철 전기차 렌터카 수요를 감안했다.

이어 11월에는 이를 성수점·죽전점/광

산점/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등 6개 점포로 확대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충전소 브랜드링과 디자인 개선을 완료하고 충전소 자체를 명소화해 '세상에 없던 전기차 충전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집합형 전기차 충전소는 유통업계 최초로 '초고속(100kwh급)' 전기차 충전소로서 동시에 18대의 차가 40분(현재 '아이오닉' 기준) 만에 충전을 마칠 수 있을 만큼 고사양이다.

요금은 충전 속도별(3종)로 회원가 기준 초급속(100kwh급)은 250원, 급속(50kwh)과 중속(20~25kwh)은 173원이다. 또한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번호인식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충전기는 점포당 평균 9기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1기당 차량 2대(총 18대)를

충전할 수 있다. 호환되는 충전기 타입은 '콤보 DC' (레이, 소울, 아이오닉 등)와 '차데모 DC' (스파크, i3, 아이오닉, 볼트 등) 2종이다.

이마트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2010년 유통업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현재 110여개 점포에서 '완속'과 '급속' 충전기 200여기를 운영하는 한편,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 D2역시 판매처를 현재 18곳으로 확대했다.

이마트 김득용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고객이 쇼핑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업보고서 경영진단 여전히 '부실'

사업보고서에서 핵심기재 사항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이 여전히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의 MD&A를 점검한 결과, 형식적 요건은 75%가 충족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내용 충실도는 76%가 '부실'로 평가됐다고 2일 밝혔다.

MD&A는 경영진이 회사경영 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사업전망 등을 분석·공시하는 제도다.

MD&A의 충실기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점검보다 대사회사를 2배로 확대했다.

점검 항목별로는 기업들의 64%가 '개요'에서 홍보성 문구나 단순 통계수치만 제시해 가장 미흡했다. '재무상태·영업실적'은 33%가 변동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동성' 역시 25%는 당해연도 유동성만 기재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지 않았다. 또 '자금조달' 항목에서도 28%가 기말 기준 자금조달 현황만 기재하는데 그쳤다.

/안상미 기자 smahn1@

(MD&A 점검결과 (종합))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형식		내용		
	충족	미충족	충실	보통	부실
금번점검 (18.6월)	75사 (75%)	25사 (25%)	16사 (16%)	8사 (8%)	76사 (76%)
1차 점검 (18.1월)	38사 (75%)	13사 (25%)	5사 (10%)	4사 (8%)	42사 (82%)



스마트폰 구매 1년 후... 중고폰 가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1~2년 후 중고폰으로 되팔 계획인 소비자라면 아이폰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1년 후 중고폰 가격이 타사 제품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착한텔레콤은 중고폰 빅데이터 제공사 유피엠과 함께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중고폰 잔존가치를 분석한 수치를 2일 발표했다.

1년 후 중고폰 잔존가치는 애플이 출고가 대비 절반을 넘는 5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3%, LG전자는 20%로 그 뒤를 이었다. 2년 후 잔존가치는 애플 29%, 삼성전자 14%, LG전자 7% 순이다.

중고폰의 잔존가치는 정상 작동과 액정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다. 외관이 깨끗한 'A급 중고폰'은 잔존가치가 10~15%포인트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10%의 잔존가치는 10만원 상당으로 환산될 수 있는 셈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향후 렌탈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중고폰의 잔존가치에 따라 렌탈비가 달라져 중고폰 잔존가치를 올리는 것이 스마트폰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애플의 중고폰 잔존가치가 높은 이유는 전세계 표준화 된 아이폰의 특성상 중고폰 유통량이 많고, 사실 수리점 등을 통해 수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이 꼽혔다. 또 iOS 업데이트 지원이 지속돼 오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LG전자의 중고폰 잔존가치가 낮은 이유는 2~3년 전 출시한 'G4'·'G5'·'V10' 등의 초기 불량률이 발생했고, 전세계 판매량이 줄어들며 중고폰 유통량도 줄어 잔존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조용한 '첫 출근'

父 집무실은 추모 의미로 보존키로 대외활동 자제·경영에만 집중할 것

구광모 LG그룹 신임 회장의 2일 회장으로의 첫 출근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동관 30층 집무실로 출근했다.

집무실은 아버지인 고 구분무 전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바로 옆 방에 마련됐다. 구 전 회장의 집무실은 추모의 의미로 보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회장 직함을 부여받은 뒤 사흘 만의 출근이자, 회장으로서의 첫 출근이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다.

다만 구 회장은 이날 오전 (주)LG 사내 게시판에 "고객가치 창조·인간존중·정도 경영이라는 LG Way에 기반한 선대회장의 경영 방향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시장을 선도하고 영속하는 LG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짧막한 취임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지난달 29일 LG그룹에서 배포한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LG

보도자료에 소개된 당일 이사회에서의 구 회장 인사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한 (주)LG 관계자는 "구 회장이 당분간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그룹경영 현안에만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7월에 개최되는 임원 세미나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임원 세미나는 구분무 전 회장이 주재했었고, 구 전 회장이 와병 중일 때는 구

분무 부회장이 이끌었던 행사다.

'구광모호(號)'가 이처럼 조용히 출항한 것은 그룹 내부 쟁기기를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 회장은 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재계의 예상보다 빨리 그룹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그런 만큼 구 회장은 당분간 하현회 (주)LG 부회장 등 계열사 부회장단으로부터의 수시 보고를 통해 그룹이 돌아가는 상황부터 면밀히 파악, 실질적인 그룹 장악력부터 키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로서는 11월 사업보고회가 구 회장의 첫 대외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회는 하 부회장이 주재를 맡았는데, 오는 11월 올해 한 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하반기 사업보고회를 구 회장이 처음 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사업보고회 이후 인사가 진행됐던 만큼, 올해 구 회장이 사업보고회 이후 자신만의 경영원칙으로 취임 이래 첫 인사를 단행할지도 주목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NAVER

정보보호의 달 맛이 정보보호 활동 활발

네이버가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이용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지식 테스트와 인식향상을 돕는 '스텝 1'과 네이버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스텝 2'로 이뤄진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스텝 1'은 이용자들이 '네이버 개인정보 학력고사'에 응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며, 답안을 제출한 이용자 중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네이버 개인정보 학력고사' 문제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스텝 2'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에 참여한 이용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네이버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안한 두 명을 선정하여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 미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GDPR 강연도 개최한

다. 오는 26일 이진규 최고 개인 정보 책임자(CPO)가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는 내부 임직원의 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정기 보안 교육 외에도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및 블록체인 관련 보안 이슈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용대 교수,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 등을 초청해 내부 강연을 진행했으며, 오는 20일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김대식 교수를 네이버 그린팩토리로 초청해 '뇌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주제로 내부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서운 기자 yuni2514@